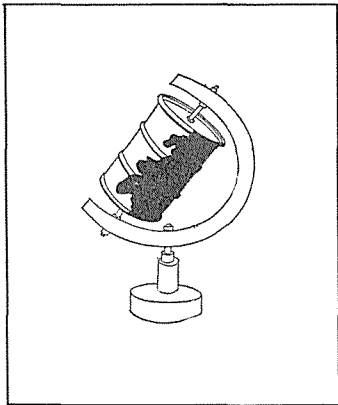


# 石油文明의 危機



20 세기의 역사적 폐시미즘을 대표하는 独逸의 문명사상가 시팽글러는 1918년 그의名著「西洋의 没落」을 썼다. 1차대전 후에 발표된 이 책은 유럽지식인의 어두운 역사의식의 반영이다. 서구문명의 종말적 몰락을 예언한 이 책이 그 당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西歐의 문명은 몰락했고, 역사는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럽지식인들의 절박하고 심각한 역사의식이었다.

현대에는 모든 시대중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발달한 시대다. 왜 현대인의 관심속에서 역사의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현대가 역사의 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은 현실의 반영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의 의식이 생기고, 전쟁의 시대에는 전쟁의식이 강해진다. 인간의 생명이 순조롭게 전개될 때에는 의식이 고개를 쳐들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이 저해요소나 위기적 상황에 부딪힐 때 의식이 명확해지고 첨예화한다. 역사의식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역사가 평화롭고 순탄하게 전개될 때에는 별로 역사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가 파국에 직면하거나 위기에 봉착할 때, 강하고 뚜렷한 역사의식이 대두한다. 현대인이 위기적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현대가 바로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역사의식은 곧 역사적 상황의 자각이요, 반영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 유사 이래 최대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 아무도 미래의 수수께끼를 푸는 자가 없다. 우리는 어디서 정신의 안식을 찾을 것인가.」

덴마크의 시인이요 史學者인 그룬트비히가 백여년전에 외친 이 말은 그대로 현대인의 역사의식의 표명이다. 石油文明의 종말을 눈앞에 둔 현대인의 역사의식은 앞으로 더욱 절박해 질 수밖에 없다.

현 대사회를 일컬어  $C_nH_{2n}$ (炭化水素)시대, 즉 石油時代라고 한다. 独逸의 슈피겔誌는 갈릴레이의 이론을 해학적으로 수정하여「지구에는 석유를 축으로 자전한다.」고 했다. 최근에

는 석유의 임팩트를 가리켜 「인터메스틱」(Inter-mestic)이라는 新造語까지 등장했다. 「국제적」이라는 「인터내셔널」과 「국내적」이라는 「도메스틱」의 합성어인 인터메스틱이 뜻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석유의 임팩트는 국제적, 국내적 영역에 동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대사회의 번영은 안정된 에너지의 공급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이 지상에서 에너지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자원은 20세기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活力素다. 석유가 없으면 하루도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혈액이나 마찬가지다. 하이 옥탄율의 개솔린은 하늘을, 重油는 바다를, 개솔린과 등유는 地上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 석유는 자신의 위력을 정치에까지 미치고 있다.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타산만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서 석유를 이용하고 있다.

1960년 9월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처음 창립되었을 때, 오만한 西歐매스컴들은 그 존재가치를 무시,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해마다 두차례씩 열리는 OPEC 총회는 전세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석유가격은 세계경제를 근본으로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 와 반면에 메이저(국제석유자본)의 위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메이저는 70년대에 들어 와서 종전의 막강했던 지위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한때 전지전능의 위력을 자랑했던 그들의 지위에 균열이 일어났다.

아름든 제 4차 中東戰을 계기로 국제석유가격이 종전 메이저의 專斷的 결정사항에서 산유국의 결정사항으로 넘어 온것은, 이스마일 이집트財相의 말과 같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결정이 歐美圈밖에서 결정되는 첫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마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구자원은 유한한 것이고, 석유자원만 하더라도 조만간 代替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可採年限이 앞으로 불과 30년 내지 50년 내외밖에 남지 않았다는게 석유전문

가들의 公同된 의견이다. 따라서 60년대의 값싼 油價에서 형성된 소비가 미덕이라는 생활습성이 지양되지 않는 한, 석유자원의 부족시대는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다.

**석** 유자원의 유한성은 불가피하게 석유가격의 폭등을 초래한다. 오늘날 석유가격만큼 수요공급의 법칙이 비정하게 적용되는 품목도 없다. 70년대초 석유전문가들이 배럴당 30달러선의 油價는 오는 90년대에나 이룩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 수준은 80년 초반에 이미 돌파했고, 81년 초반에는 油價 40달러시대를 맞고 있다.

**지** 금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는 모두 인플레이에 허덕이고 있다. 모두가 케인즈경제학의 마술을 믿고, 유효수요창출을 통한 高成長을 기대했고, 사실 이 때문에 「대변영」의 60년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高成長의 유지는 자원유한성의 제약에 걸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제 어떤 나라도 기술혁신의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는한, 지금보다 나은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케인즈경제학의 그림자가 꼬리를 질게 드리워 인플레이의 위협이 만성화되었으며, 그 어느 나라도 높은 물가에 신음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우리 경제도 결코 이의 예외가 될수 없었고, 더우기 無資源의 처지에서 산유국에 대한 「고율의 납세」때문에 高物價, 低成長을 동시에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 코 끝날것 같지 않은 현실의 악몽과 같이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의 석유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戰後의 세계사를 통틀어 값싼 석유시대의 총말보다 더 심각하게 기존세계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나 쟁점은 없었다. 이 변화를 단순히 석유위기라고 부른다는 것은 너무도 미흡한 감이 있다. 그것은 정치의 위기요, 경제의 위기이며, 국제세력균형 자체의 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반적 위기」다.

밀려오고 있는 油波를 헤쳐 나갈 대비책을 단단히 마련하는 것은 이제 전 인류적 차원의 과제가 되었다.\*